최근 수출부진 진단 및 전망과 시사점

요 약

본 글에서는 최근 수출부진의 주요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다 2019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수출이 3월까지 전년동기비 21.3%나 감소하였고, 다른 주력 수출품목도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도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였다. 여기서는 최근 우리 수출부진의 원인을 ① 반도체경기 부진, ② 수출단가 하락, ③ 세계교역 둔화, ④ 중국의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세계 반도체경기의 변화로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수출부진을 주도하였다. 둘째,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도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 폭이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2019년 우리 수출은 상반기까지는 부진을 이어가다가 반도체 및 주요 품목의 단가 회복과 주요국의 거시정책 효과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리한 교역환경 속에서 향후 우리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품목 및 시장 편중도가 심한 우리의 수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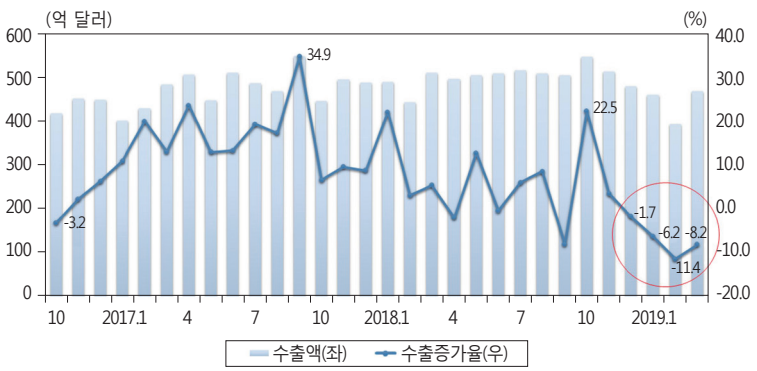
1. 최근 수출동향

2017년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이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다 2019년 들어 급속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지난해 4분기 7.9%의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11.4% 감소로 2016년 7월 이후 31개월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10월 549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던 수출액도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들어 3월에는 471억 달러에 그쳤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비 21.3%나 감소하였으며,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올해는 -9.9%, -6.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조선 등도 두 자릿수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어 13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3월까지 전년동기비 10.9%나 감소하였다. 다만 지난해 수출이 감소하였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 하겠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수출 감소가 어떠한 산업에서 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기여도 분석을 해보면, 전년동기비 반도체 수출의 감소폭이 63억 달러로 전체 수출감소폭 123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조선과 석유화학이 각각 17억 달러와 12억 달러 감소하였고, 비중은 작으나 감소폭이 컸던 무선통신기기도 12억 달러 정

〈그림 1〉 최근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DB.
주 : 2019년 3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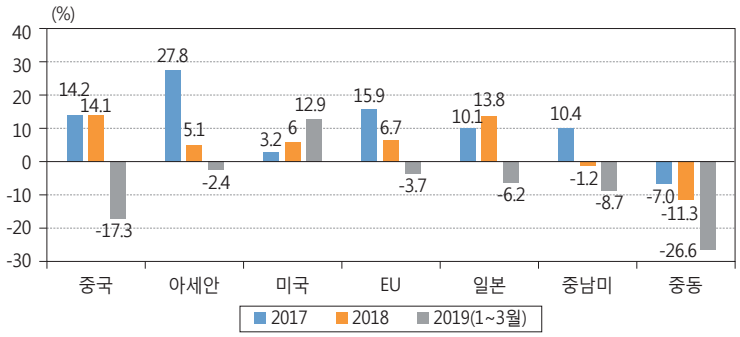
〈표 1〉 산업별 수출액 및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2018			2019(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기여도
반도체	126,706	29.4	20.9	23,199	-21.3	17.5	-6,290
일반기계	53,558	10.2	8.8	12,931	0.8	9.7	99
석유화학	49,984	11.9	8.3	11,128	-9.9	8.4	-1,227
석유제품	46,350	33.2	7.7	9,424	-6.0	7.1	-597
자동차	40,887	-1.9	6.8	10,256	4.7	7.7	463
철강	33,973	-0.7	5.6	7,996	-1.6	6.0	-129
디스플레이	24,679	-9.9	4.1	4,971	-11.6	3.7	-653
자동차부품	23,119	-0.1	3.8	5,620	3.0	4.2	166
조선	21,275	-49.6	3.5	5,198	-24.7	3.9	-1,702
무선통신기기	17,089	-22.6	2.8	3,177	-27.1	2.4	-1,184
섬유	14,080	2.5	2.3	3,162	-6.9	7.1	-233
컴퓨터	10,760	16.9	1.8	1,856	-33.7	1.4	-942
가전	7,216	-18.3	1.2	1,792	-4.8	1.4	-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 2019년 3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2) 기여도는 2018년 1~3월 대비 2019년 1~3월 수출액의 차이를 의미.

〈그림 2〉 지역별 수출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2019년 3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도 줄었다. 반면, 수출증가는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두 부문을 합쳐도 증가폭은 겨우 6억 달러 정도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지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 30%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던 대아세안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동지역은 20% 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아세안 지역에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집중된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2018년 1.8%라는 소폭의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U와 일본도 한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함께 경제회복세로 인해 지난 2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이 EU와 함께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거의 유일하게 높은 수출 증가세를 나타낸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1)]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시장마저도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칠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출부진의 요인

(1) 반도체경기 둔화[2)]

최근의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에서 20% 수준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2017년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세를 보이던 반도체 수출은 작년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체 수출을 끌어내리고 있다. 반도체 가격은 DDR4 8Gb D램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초 4달러 초반에서 시작하여 2018년 9월 8.2달러 수준까지 두 배 정도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반전하여 현재는 4.5달러 수준으로 다시 2017년 초반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수출 감소는 최근 2년여간 4차 산업혁명 등에 힘입어

1) 미국경제는 지난 4분기 성장률이 2.2% 수준으로 양호하나 기대한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기록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던 고용지표도 최근 소폭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최근 발표된 구매자관리지수(PMI) 등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등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세부적인 반도체경기와 관련해서는 「월간 산업경제」 3월호의 특집 "반도체 업종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9년 반도체 경기전망"과 "최근 반도체 경기변동의 평가와 전망" 원고를 참고하시오.

지속되어 온 세계 반도체 경기호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 후퇴 내지 조정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였고 모바일 기기나 IoT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등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 반도체 경기후퇴로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수출부진이 우리 수출 전체의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감소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수출의 44%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5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보다 -39.3% 감소했고 물량도 -8.3% 감소하였다. 대홍콩도 수출액이 43억 달러로 -32% 정도 감소하였고 그나마 베트남에 대한 수출액이 12억 달러로 7.8%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전체 수출 감소액 123억 달러의 절반 이상인 62억 달러가 반도체에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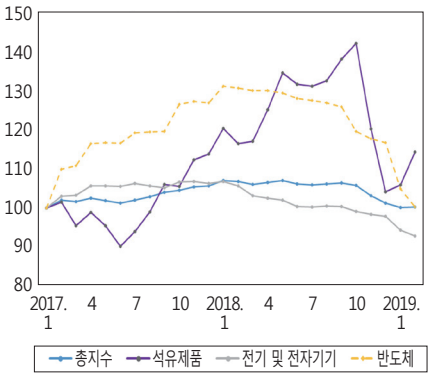
D램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는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들이 가격 상승기에 구매한 재고를 활용하면서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미루고 있으며 이것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세를 다시 가속하는 상황에 있다.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IT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의 소진과 대기 수요가 구매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2) 수출단가 하락

반도체 가격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가격도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의 수출물가 지수 추이에서 보듯이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총 수출물가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주요 품목의 수출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뿐 아니라 주력 수출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물가는 2018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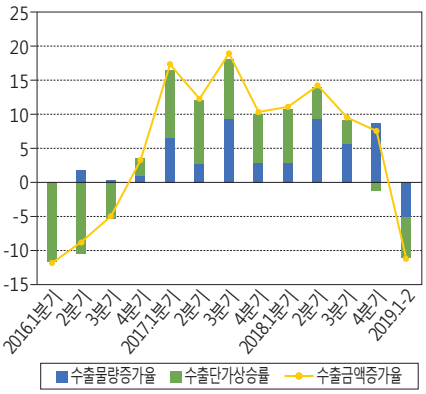
세부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3분기 연속 10% 내외의 수출단가 하락률을 보였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2018년 3~4분기 모두 18%의 하락률을 보였다. 두 제품군 모두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에서 경

〈그림 3〉 주요 품목 수출물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달러기준, 2017년 1월을 100으로 조정.

〈그림 4〉 수출증가의 단가와 물량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9년은 1~2월 평균.

쟁이 격화되면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디스플레이도 LCD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4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수출단가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과잉공급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의 수출단가도 2018년 1~2분기 2.2%대의 소폭 상승하다가 4분기에 -1.2%로 하락하였다. 석유제품의 경우도 2017년 2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3분기에 급격히 하락세로 꺾였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출추이를 물량과 단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출단가 상승률은 2017년 1분기를 정점으로 서서히 둔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8년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를 보면 2017년에는 수출단가 상승이 수출증가를 이끌었다면 2018년 들어서는 수출단가의 기여도보다 수출물량 증가율의 기여도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증가율의 둔화추세에서도 수출물량은 5~10% 내외의 다소 안정적인 증가율를 나타내고 있어서 수출물량 증가율이 총수출을 지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물량도 2019년 들어 -5%대의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체 수출의 감소세를 이끌었다. 최근의 수출부진은 물량과 단가의 동시 하락의 영향이지만 추세적으로는 단가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

(3) 세계교역 부진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 교역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최근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IMF에 의하면 2019년 세계 교역증가율

〈표 2〉 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 성장률 변화 추이

	2017	2018(A)	2019년 전망치 변화			B-A
			2018.4	2018.10	2019.4(B)	
전세계	3.79	3.60	3.94	3.65	3.33	-0.27
선진국	2.37	2.22	2.22	2.12	1.80	-0.42
개도국	4.79	4.55	5.10	4.68	4.35	-0.20
한국	3.06	2.67	2.92	2.58	2.55	-0.12
교역량	5.40	3.83	4.67	4.00	3.37	-0.46

자료 : IMF WEO.
주 : 2017년과 2018년은 실적치, 2019년은 전망치이며 전망시기별 수치임.

은 약 3.4%로 2018년 3.8%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초 선후진국의 동반 회복으로 세계경제가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회복세가 뚜렷이 후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경기가 현저한 둔화 추이를 보이면서 IMF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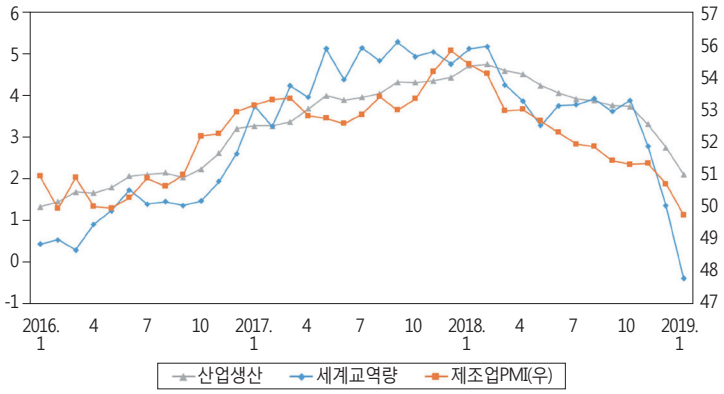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듯이 세계경제의 둔화 움직임은 2018년 말 이후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교역 성장률은 3%대 후반을 유지했으나 동기간에 경기의 선행지수로서의 성격을 갖는 제조업 PMI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생산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둔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이 양적완화 기조에서 금융긴축 기조로 글로벌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된 것이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및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보호주의 확산과 무역분쟁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된 것도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교역량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은 미국발 통상분쟁의 확산과 유럽의 브렉시트 장기화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무역분쟁으로 교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트럼트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분쟁 확산을 반영하여,[3] 전세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3)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대표적인 조치로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등 기존의 무역협정을 부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이용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는 등 무역분쟁을 확산시켰다.

〈그림 5〉 세계 산업생산 및 세계교역 성장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4.
주 :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

지수(US Trade Policy Uncertainty)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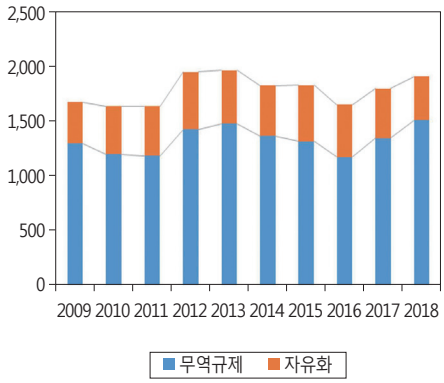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2018년 6월 중국에 대해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대두와 사탕수수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들어 관세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세계 수출감소는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 수출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관세부과가 자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중국도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경기 둔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양국이 협상테이블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이 타결 기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은 항공기산업의 보조금을 빌미로 무역분쟁의 범위를 다시 유럽으로 확산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 중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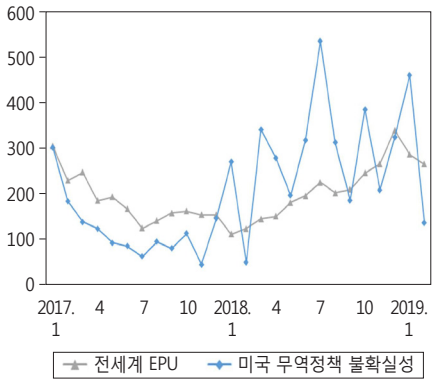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이다. 물론 중국의 성장둔화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

〈그림 6〉 전세계 무역조치 추이



자료 : Global Trade Alert.

〈그림 7〉 전세계 EPU와 미국 TPU



자료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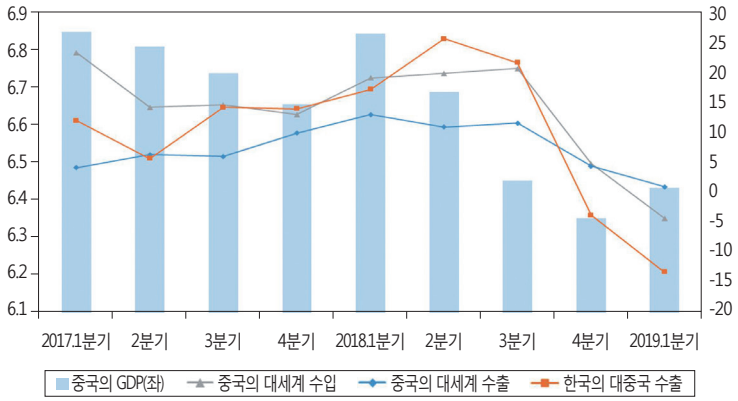
만 최근 들어 성장 둔화 폭이 확대되고 중국 경기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대 내내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34.8% 증가를 정점으로 2012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최근 추이를 보면 대중 수출은 2019년 1분기에 318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7.3% 감소했으며 금액으로는 67억 달러가 감소하여 전체 수출 감소분 123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했다. MIT3 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보면 올해 1분기에 반도체가 대중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가운데 -31.5%가 감소하여 85억 달러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비중이 7%인 평판디스플레이센서가 24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5.3% 감소하였다.

이 같은 대중 수출의 부진은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과 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 2000년대 연평균 9%를 상회하였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6%대로 진입하여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성장둔화 폭은 최근 들어 좀 더 확대되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직전 2018년 4분기가 6.35% 수준으로 전년동기 6.66%보다 0.3%포인트나 낮게 나타났으며 2019년 1분기 추정치도 6.43% 수준으로 이전 두 개연도 1분기 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세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꾸준한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듯이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대세계 수입증가율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대세계 수입증가율보다 대한국 수입증가율이 더 낮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우리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도 직면해 있

〈그림 8〉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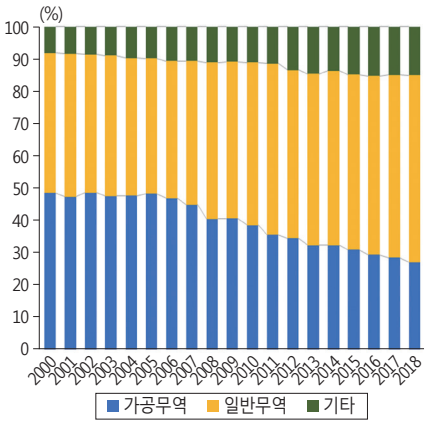
자료 : CEIC.
주 : 2019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

다. 중국은 자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공무역 억제조치를 확대해왔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해왔다. 2000년대 초 전체 무역액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중국의 가공무역은 최근 30% 수준까지 축소되었다(〈그림 9〉 참조). 동기간에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구조는 중간재가 2000년대 80% 수준에서 2011년 69%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77%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그림 10〉 참조).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과정에서도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중간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제 가치사슬 구조에서 중국과의 강한 결합도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제조 2025' 등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산업정책 중심기조가 강화될수록 그간 중국의 조립공장을 활용하던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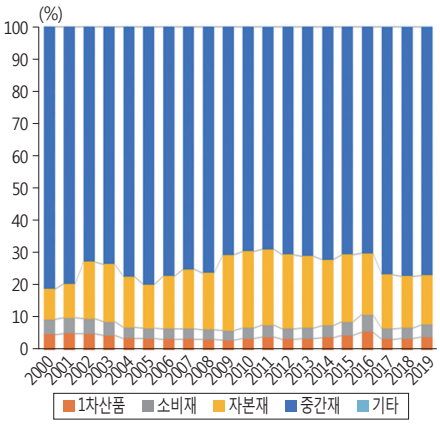
특히 현지 중국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자국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중국 투자가 축소되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으로 보내는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제1공장 폐쇄 결정 등 사드 보복 이후 회복되지 않은 대중국 투자 및 현지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반면 중국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5%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류의 영향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역직구 등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아직 그 규모는 미미하다.

〈그림 9〉 중국의 무역방식별 구성



자료 : CEIC.

〈그림 10〉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 구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향후 전망 및 정책 시사점

(1) 수출전망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2019년 우리 수출은 상반기에는 부진을 이어가다가 반도체 및 주요 품목의 단가 상승과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일정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기관의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가 작년보다는 하락하고 하반기에 회복국면을 거쳐 2020년에 다소 나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MF, OECD, World Bank, Global Insight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2019년 3.4%, 2020년 3.6% 수준이다. WTO의 세계교역성장률 전망도 내년에는 작년보다 0.3포인트 낮은 2.6% 수준이고, 2020년에 3.0%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을 낮춘 주된 요인은 세계교역의 둔화 추세와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을 연기하는 등 확장적 방향으로 거시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세계경기 둔화 움직임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전망이 최근의 반도체 단가하락이 장기화되지는 않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 물량이 언제 소진되느냐에 따라 회복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이다. 다행히 반도체 경기와 관련한 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5G 서비스의 개시, 인텔의 신규 CPU 출시, 폴더블 폰 출시 등으로 인해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품목의 단가가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고 물량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도 OPEC의 감산기조가 유지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 연말 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있어 석유관련 제품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업종에서는 최근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자동차의 선전이 기대된다. 미국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지속되고 유럽 등으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디스플레이산업에서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LCD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OLED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 수출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조선도 1분기는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고가의 LNG선 수주를 통해 2018년 세계 1위의 수주실적을 되찾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4] 중국 정부는 올해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과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리인하도 고려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정책효과가 발휘된다면 하반기와 내년에는 우리의 대중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이 상반기 중에 타결된다면 대중 수출 회복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하면 우리 수출은 상반기에는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과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기 둔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미국 경제지표가 여러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금리인상 계획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었

4) 씨티은행은 6.2%에서 6.6%로, ING는 6.3%에서 6.5%로, 바클레이스도 0.3%포인트 높인 6.5%로 조정하였다.

던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하강에 대응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도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긴축정책에서 다시 양적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IMF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한 다자간 정책공조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물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확정적 재정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환율과 금리 등 통화정책 영역에서는 국제적인 정책공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 확산과 관련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대해서 항공기 보조금을 빌미로 다시 무역분쟁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의 재선시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과의 분쟁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인 투자자 대우 등에서 전향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유럽과의 무역분쟁 확산 및 브렉시트 장기화는 최근 경제의 하강 속도가 빠른 유럽 경기의 불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 대유럽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와 수출선 다변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는 우리 수출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더라도 시장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삼성의 중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변화나 현대자동차의 중국공장 폐쇄 등에서 보듯이 우리와 중국의 교역구조 및 국제가치사슬상의 분업구조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중국과의 가공 중간재 교역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일부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 수출비중에서 아직은 미미한 소비재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고가 LNG선 수주를 회복한 경우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중 분쟁에 대응하고자 중국 자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활

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수출지원 정책의 조정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출범하였다.[5] 핵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첫째, 단기 수출활력 제고, 둘째, 수출품목·시장다변화, 셋째, 수요자중심 수출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자금을 포함한 무역금융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규모 확대 및 대기업 등과의 동반수출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인 품목과 시장의 편중도를 해소하고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수출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업종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이 감소 추세인 현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지원정책과 산업구조 및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의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수출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겪게 되는 애로사항 및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 지원정책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수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단가가 회복되어 우리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되더라도 일부 품목에 편중된 우리 수출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품목 편중도와 대외 변수에 취약한 특정 시장 편중도를 개선해야 한다.

5)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 대책」, 보도자료, 2019.3.4.

김재덕
동향분석실·부연구위원
jdkim@kiet.re.kr / 044-287-3201
〈주요 저서〉
• 생산방식 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2018, 공저)
• 글로벌 무역 정체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2017, 공저)